2020 고난주간 묵상집

완전한 사랑
십자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4월 6일(월) – 10일(금), 오전 5시

거룩한 문 성문교회

4월 6일(월) :: 첫째 날

상처 입히는 말을 삼가게 해주십시오

(마 27:41-44) 41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42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43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44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아르마 크리스티'(Arma Christi)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처형할 때 썼던 고난의 도구, 즉 형구를 의미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 때 썼던 도구들은 그것들을 이겨내신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도 하는데, 이번 고난주간에는 십자가를 통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통 중 가장 큰 고통은 '사람들이 쏟아낸 거친 말이었겠구나'하는 생각입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손바닥으로 때리며 "그리스도야, 너를 때린 사람이 누구인지 맞춰보아라"라고 했을 때,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옷을 벗기고 주홍색 옷을 걸치게 한 뒤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한 다음 "유대인의 왕 만세!"라고 외칠 때,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아라."라며 지나가는 이들이 조롱할 때,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라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이 조롱의 목소리를 높일 때, 그 하나하나의 말은 몸과 마음에 독화살처럼 깊숙이 박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자가 차라리, 내 원수였다면, 내가 견딜 수 있었을 것이다. 나를 미워하는 자가 차라리, 자기가 나보다 잘났다고 자랑하는 내 원수였다면, 나는 그들을 피하여서 숨기라도 하였을 것이다. 그런데 나를 비난하는 자가 바로 너라니! 나를 미워하는 자가 바로 내 동료, 내 친구, 내 가까운 벗이라니!" (시 55:12-13)
말로 누군가를 조롱하거나 아픔을 주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말로 입히는 상처는 창보다도 깊이 마음을 찌릅니다.

Prayer: 누군가의 마음을 다치게 하거나 병들게 하는 말을 삼가게 하소서. 우리의 말이 누군가를 살리고 일으키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7일(화) :: 둘째 날

주님을 파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마 26:14-16) 14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이들은 우리와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멀리 있는 누군가와, 나와 별 상관없는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하지는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이들이 가장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지요.

십자가의 길을 걷는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이들도 예수님과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이 그들입니다. 그 누구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더 많은 말씀을 듣고, 더 많은 기적을 보고, 더 많이 예수님의 속내를 알아차렸을 사람들, 그들로부터 받는 상처는 다른 이들로부터 받는 상처와는 비교할 수 없는 아픔이었을 것입니다. 바흐의 <마태수난곡> 중 가룟 유다와 관련된 가사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피투성이가 되는구나, 그를 사랑했던 주님의 마음이여! 아, 당신이 키우시고 당신 가슴의 젖을 먹고 자란 아이가 그 양육자를 죽이려 하다니!"

그들에게 예수님을 넘긴 이유를 충분히 알 수는 없지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대가로 은전 서른 닢을 받습니다. 유다는 마치 종교지도자들과 흥정하고 있다는 느낌을 줍니다. 아무 조건 없이 이 땅에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흥정의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신뢰를 받아 돈 주머니를 관리하던 제자가 말이지요.

은전 서른 닢은 아픈 의미를 떠올리게 합니다. 출애굽기 21장 32절에는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소가 남종이나 여종을 받아 죽게 하였으면, 소 임자는 그 종의 주인에게 은 삼십 세겔을 주고, 그 소는 돌로 쳐서 죽여야 한다." 결국 은전 서른 닢에는 예수님을 하찮은 존재로 여기는 조롱의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게 한 것 중에 유다가 받아 든 서른 닢의 '동전'이었다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을 몹시도 아프게 합니다. 돌아보면 그런 일은 지금도 반복되고 있습니다. 재물 때문에 주님을 등지는 일을 어렵지 않게 보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 무엇과도, 주님은 바꾸거나 팔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Prayer: 유다가 받아든 은전 서른 닢, 주님은 결코 팔릴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파는 일이 결코 없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내용은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대한기독교서회)' 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4월 8일(수) :: 셋째 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마 27:23-26) 23 빌라도가 이르되 어찜이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24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민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25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26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 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 주니라

물을 담아 얼굴이나 손발 따위를 씻을 때 쓰는 둥글넓적한 그릇을 '대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관련하여 떠오르는 두 개의 '대야'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사용한 대야이고, 다른 하나는 빌라도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을 때 사용한 대야입니다.

빌라도를 생각하면 안타까움과 함께 안쓰러운 마음이 듭니다. 빌라도는 악다구니를 퍼부으며 고발하는 사람들 앞에서 한 마디 대답도 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미 죄 없음을 알아차렸습니다. 시기심에서 비롯된 일임을 안 것이지요. 바라바를 내세운 것도 예수님을 살리기 위한 나름의 묘책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범상치 않은 꿈을 꾸고는 사람을 보내어 옳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지 말라고 부탁한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백성들에게 넘겨줍니다. 흥분한 군중 앞에서 예수님을 살리려 했다가는 민란이 일어날 것이 자명해 보였습니다. 관할하는 지역에서 민란이 일어나는 것은 자신의 지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태로운 일이었습니다.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을 넘겨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빌라도에게는 자기 자리를 지키는 일이 예수님을 죽음에 넘기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빌라도가 취한 행동이 있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군중 앞에서 자신의 손을 씻은 것입니다. 손을 씻는 것은 지금 벌어지는 일이 자신과는 무관하다는 것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과연 빌라도는 손을 씻음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무관하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빌라도의 이름을 거명합니다. 예수님의 죄 없음도 알았고, 살리려고 노력도 했고, 직접 죽인 것도 아니니 빌라도로서는 얼마든지 가볍게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죽게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빌라도라고 합니다.

말로 가리거나 물로 씻을 수 없는 죄가 있습니다. 까마득한 세월이 지나가도 지워지지 않는 잘못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변명 삼아 손을 씻을 물이 아니라, 내 잘못을 정직하게 인정하며 흘려야 하는 눈물입니다.

Prayer: 큰 잘못을 하고도 손을 씻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손 씻을 물이 아니라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내용은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대한기독교서회)' 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4월 9일(목) :: 넷째 날

잘 박힌 못이 되게 하소서

(요 19:17-18) 17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18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십자가에 선 골고다 언덕을 다시 한 번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기 위해 동원된 적잖은 도구들이 눈에 띕니다. 가시를 만든 면류관이 있고, 동물의 뼈나 쇳조각이 박혀 있어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나갔다는 채찍이 있고, 옆구리를 찔러 마지막 물과 피 한 방울까지 쏟게 한 창이 있고, 베드로가 세 번 부인한 것을 상징하는 수탉이 있고, 베드로가 종의 귀를 잘라낸 칼이 있고, 횃불과 막대 등 예수님을 체포할 때 쓰인 도구가 있고, 조롱하며 예수님을 때린 손과 주먹이 있습니다.

각각의 도구들이 만들어낸 결과를 생각하면 아픔과 송구함과 민망함이 뒤섞인 묵중한 통증이 느껴집니다. 내가 당할 고통 대신 당하신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세 개의 못과 망치', 못은 지금 우리가 쓰는 못과는 사뭇 다릅니다. 가늘고 매끈한 못이 아니라 달군 쇠를 두드려 만들었지 싶은 투박하고 굵은 못입니다. 깨끗한 못이 아니라 녹슨 못입니다. 못의 무게와 형태는 팔목을 단번에 관통하고, 축 쳐진 몸뚱이를 지탱할 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이었습니다. 목수 일을 하며 어찌 못을 다룬 적이 없겠습니까? 나무와 나무를 연결하여 가구나 도구를 만들며 꼭 필요한 자리에 못질을 한 경험이 많으셨을 것입니다. 못이 제대로 박혀야만 가구나 도구가 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아셨을 것입니다. 양 팔과 발에 못이 박힐 때 주님은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당신은 지금 하나님의 도구가 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이지요.

구약 성경에는 잘 박힌 못에 관한 말씀이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말은 찌르는 채찍 같고, 수집된 잠언은 잘 박힌 못과 같다. 이 모든 것은 모두 한 목자가 준 것이다."(전 12:11)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단단히 박힌 못처럼 받을 수 있다면, 어떤 일이 다가온다 해도 우리는 세상을 이길 것입니다. "단단한 곳에 잘 박힌 못같이, 내가 그를 견고하게 그가 가문의 영예를 빛낼 것이다."(사 22:23) 왕궁의 살림을 맡아보던 셉나를 대신하여 엘리아김을 세우며 하는 말씀입니다. 막중한 일이 맡겨져도 충분히 감당할 것을 잘 박힌 못에 빗대어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 박힌 못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박힌 못처럼 간직해야 하며, 어떤 일이 주어져도 잘 박힌 못처럼 묵묵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주님의 손과 발에 박힌 못처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녹슨 못이 될 수 있습니다.

Prayer: 잘 박힌 못이 되고 싶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잘 간직하여 주신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님 손에 못 박는 삶이 되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내용은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대한기독교서회)' 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

4월 10일(금) :: 다섯째 날

주사위를 던지지 않게 하소서

(요 19:23-24) 23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24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얻나 제비 뽑자 하니 이는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군인들은 이런 일을 하고

마침내 예수님의 옷이 벗겨집니다.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뒤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한 몫씩 차지합니다. 네 조각으로 나누어진 옷은 십자가에 관한 이야기가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져나갈 것을 예견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속옷은 이음새 없이 위에서 아래까지 통째로 짠, 호지 않은 옷이었습니다. '호다'라는 말은 '헝겊을 겹치어 바늘땀을 성기게 꿰매다.'라는 뜻입니다.

아까워서였을까요? 호지 않은 옷은 찢어 나누는 대신 한 사람이 갖기로 합니다. 찢어지지 않은 속옷은, 예수님의 마음과 그 마음이 담긴 교회는 나누어질 수 없음을 보여줍니다. 속옷이 벗겨지는 순간, 차마 누구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차마 그렇게 그리지 못해도 예수님은 발가벗겨집니다. 발가벗겨져야 할 것은 우리의 수치, 그 수치까지도 주님이 당하신 것입니다.

이음새 없는 속옷을 누가 가질지를 정하기 위해 병사들이 택한 방법은 제비를 뽑는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십자가 옆에 무엇일까 싶던 작은 도구들은 주사위가 맞겠다 싶습니다. 병사들은 주사위를 던져 속옷의 임자를 정한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이든 고통이든 십자가가 갖는 묵중한 무게와 작은 주사위가 허공을 지나는 한없는 가벼움이 선명하게 대비됩니다.

예수님은 한 치의 오차도 없이 부르심의 길을 걸어갑니다. "내가 곧 길이다." 하신 분이 당신에게 주어진 길을 어김없이 갑니다. 행여 벗어날까 기도의 시간을 잊지 않았습니다. 흔들릴 때는 담을 핏방울처럼 흘리며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인간의 언어로 드린, 가장 깊은 곳에서 길어 올린 기도입니다. 기도를 가르치고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그러나 당신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함으로 응답되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두고 병사들은 제비를 뽑아, 주사위를 던져 속옷을 챙깁니다. 속옷을 챙기는 것조차 말씀의 응답이었던 주님의 아픈 순명을 두고, 그들은 그저 호지 않은 옷 욕심에 주사위를 던질 뿐이었습니다.

십자가와 그 중 어울리지 않는 것은 주사위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삶을 우연에 맡길 수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우리도 가야 합니다.

Prayer: 십자가 곁에서 주사위를 던지지 않게 하소서. 우연이나 운명에 맡기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뜻을 묵묵히 따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위 내용은 '아르마 크리스티 십자가에 달리다(대한기독교서회)' 책에서 발췌하였음을 알립니다.